



## Q1.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?

저는 '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다'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자주 하는 '게으른 완벽주의자'형 인간입니다. 참 모순적이지요. 올해만 해도 쓰다 버려 굴러다니는 다이어리와 플래너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.

욕심은 많아서 버거운 계획들을 쏟아내듯 적었고, 지켜내지 못하면 항상 스스로에게 부끄러워 그 페이지를 냅다 찢어버리곤 했습니다. 또 다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 플래너를 줄곧 쳐다보지 못했어요. 왠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거든요. '너 또 게을러졌구나' 하고요. 저는 그렇게 마음 한 켠이 불편한 상태로 2021년 대부분의 날들을 이렇다 할 계획 없이 보냈습니다. 야심차게 1년을 잘 살아보고자 구매했던 플래너인데, 오히려 단 하루조차도 편하게 지낼 수 없었어요.

**'더도 말고, 덜도 말고 오늘 하루만 잘 살아도 참 좋겠다.'**

저는 하루를 편안히 살기 위한 방법이 간절했습니다.



'왜 나는 플래너를 끝까지 잘 사용하지 못할까?'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봤고, 그 답은 명쾌했습니다. 머릿 속은 이리 저리 흩어진 계획들로 정신이 없는데, 기존의 다이어리나 플래너들은 **오늘 내가 무엇을 적고,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려주지 않았**습니다.

'의미 없이 많은 빈 칸들' 뿐이었죠. 오늘은 어찌 저찌 잘 채워 썼는데 내일도 꼭 이렇게 써야 할 것만 같은 마음에, 늘 해냈다는 만족감보다는 부담감이 앞섰습니다.